



상담전화 이용하려면?

입시문제, 이성문제, 가정폭력, 고부갈등, 노후걱정... 초등학생부터 철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고민 현대 가지쯤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위 사람에게 털어놓기는 부담스럽고, 혼자 짊어지고 가지니 힘든 문제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화상담. 하지만 전문상담사의 경우 이웃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신앙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터놓고 상담하기엔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불교계 상담전화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긴급·상담전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고민 있는데요?

연화원 케어복지·호스피스 교육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은 3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1시~오후 6시 '케어복지사 및 호스피스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사회복지개론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론, 불교와 사회복지, 유서작성 및 인사체형 등 이론과 실기가 함께 이뤄진다. 청각장애인을 돕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수화교육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여성발전기금으로부터 후원 받아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60명 모집. (02)2202-5831

▶ 학업·이성 고민되는 청소년 청소년, 사이버 상담 큰 비중 입시와 진로, 이성문제 등으로 가장 갈등이 많은 시기인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청소년기에는 고민거리도 다양하고 고민의 정도도 부모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청소년 고민 상담전화 1388(지역번호 없음)에는 한 달에 많게는 1만 건, 일반적으로도 6000~7000건 정도의 전화가 걸려온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격고민부터 친구문제, 이성문제, 부모와의 갈등, 인터넷 중독 등 고민도 다양하다. 전화보다는 문자, 편지보다는 이메일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받지 않는 사이버 상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청소년상담원(www.kycci.or.kr)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실시되는 사이버상담은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 중 98.4%인 72만8110건에 달했다. 인터넷 상담의 경우 공개상담과 비공개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정신문화복지재단(이사장 도각)이 운영하고 있는 마음의전화(02-738-1275)도 있다. 마음의전화가 일반 청소년

상담전화와 다른 점은 선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 심리 상담 양성과정은 거친 상담원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인연사이에 기반을 둔 상담과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이성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성상담 사이트도 필요하다. 불교상담개발원 산하 청소년 사이버 상담 사이트 '아하! 섹스(www.ahsex.org)'의 경우 부모에게 묻기 힘든 성 관련 상담을 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야 할 성 지식이나 상담사례 등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부부관계·종교문제 걱정인 부부 24시간 운영 내방 상담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 "나 하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할 텐데." 이런 이유로 부부간 폭력을 참고 사는 주부라면 여성 긴급전화 1366을 이용해보자. 1366은 위급상황에 놓인 여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담전화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담에서부터 긴급구조,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상담전화로는 '자비 의전화'를 들 수 있다. 가정·부부·종교·인생·사회문제를 비롯해 정신건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24시간 상담 체제로 운영

보이차 전문점 정해된 고객 감사 이벤트 3만원 이상 구매 시 서영보이에서 차사대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200개 한정)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하고 있다. 전화(02-737-7374-6)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사이버상담 자비24(www.jabi24.org)를 이용하면 된다. 좀 더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를 통해 전문가와 상담 약속을 잡고,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상담실로 내방해 1시간가량 상담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부설 행복완가정상담소(02-738-5586) 역시 가정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전화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부간 다툼이나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남양주 백천사 내의 '남양주시 가정폭력상담소(031-577-0020)도 불자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가정 및 아동폭력 등을 내용으로 24시간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하고 있다. 신행이나 종교문제, 혹은 가정사로 고민을 하는 불자들이라면 안국선원, 불광사, 도선사 등에 마련된 상담전화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이 밖에 아동학대(1391)나 위기가정(1688-1004) 등의 상담전화를 비롯해 성매매피해자(117), 법률구조상담(132), 아동이나 노인학대(129) 긴급 신고전화 등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노후생활이 걱정인 어르신 법률에서 경제적 문제까지 높고 병들고 경제력도 없는데 자식들에게 마저 의존여건을 당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르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곳이 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그것이다. 복지관 상담전화는 비슷한 연령대의 상담원들이 상담을 맡고 있어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우울증·강박증·치매 등 정신장애에 관한 심리 상담이나 민사·형사 등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가정문제나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상담도 이뤄지고 있다. 성북노인복지관은 2005년 '행복한 노후성 상담센터(www.sbnoin.or.kr)'를 통해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성 공개강좌'와 '실버미팅' 등도 개최해 어르신들의 성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02)929-7950 서초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2월 23일 오후 3시부터 '노년의 행복한 나만들기'를 주제로 8회에 걸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2)578-1515 서울노인복지센터(02-739-9501)와 광진노인종합(02-466-6242), 마포노인주간보호센터(02-365-3677), 금정시니어클럽(051-516-3045), 서호노인복지회관(031-231-0911), 서울노인복지회관(063-227-7483)에서는 일차 상담을 하고 있다. 이수영 기자 snoooy@buddhapia.com

인류 문화속의 茶 24. 민간(民間)의 음차 '감남의 꿀을 강박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제나라 경공(景公)때 인자가 말한 것으로 지역의 풍속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품성을 비유한 말이다. 중국의 차 문화는 보이는 현상과 민중사상의 결합을 재현하고 문인들의 다도 정신을 함축했다. 일반인은 처음에 다예(茶藝)가 너무 복잡하고, 여유가 없어 배우지 못하고 갈증 해소로 마시는 것에 불과했으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끊임없는 음차(飲茶) 방식의 창조로 인해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다예를 만들어 흥미를 일으켰다. 청말 민국 초에 이르러 민간의 음차도 흥미와 기예를 표현하기 시

청말 민간의 음차 간결해지면서 널리 퍼져 지역적 사상은 선명, 상층 차문화와는 차별 가져 좋은 일과 재물이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로 제일 좋은 차에 기타 식품을 넣어 정을 표현한다. 호남에서는 손님이 오면 반드시 차를 앞에 올리고 차탕 중에 찾았 외에 북은 풍과 생강편을 넣는다. 차를 마실 때 반드시 콩을 찜고 깨와 찌꺼기를 씹는다. 평소 음차를 많이 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도 손님이 오면 반드시 꼭 한 잔의 차를 우려 대접한다. 향주에서는 매번 집집마다 차를 끓여서 각각의 색깔의 씨를 배합하여 친척과 친구에게 준다. 민간의 음차는 유가, 불가, 도가의 계통적인 차 문화의 체계와 같지 않고 표현 형식도 규범적이지 않아 상층(上層)의 차 문화처럼 열정적이며 고상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지역의 예나 사상이 아주 선명한 것 외에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음차(飲茶)의 정신을 일상적인 교유의 매개체로 이용하였다. 민간의 차 문화는 현실생활의 반영일 뿐 아니라 특수한 형식으로 일상에서 벗어나는 정화(淨化)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 이창숙(동아시아 문화연구소 연구원)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제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중진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로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 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 뜻은 있었으나 국내의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얻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고 있지만 적용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운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경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깔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중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보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